

다산포럼

김민환



[오피니언]

영국이나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큰소리치는 이가 있다.

런던이나 로마 거리를 걷다보면 수백년 된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거리도 좁기 짜이 없다. 재개발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뇌학한 도시 풍경을 보고 만만하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경제력 자체를 비교해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나라와 격차가 크다. 1인당 GDP만 해도 영국은 3만 달러를, 이탈리아는 2만 8천 달러를 넘어서, 환율 덕분에 2만 달러를 갖 넘은 우리보다는 훨씬 높다.

국제사회에서 위상도 우리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높다. 유네스코 분답률은 두 나라가 다 우리나라보다 서너 배가 높고, 유엔개발기금 분답금은 이탈리아가 열배, 영국이 열여섯 배에 이른다.

문화지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는 두 나

라에 비해 초라하기 짹이 없다. 공공서관은 두 나라가 모두 우리나라보다 10배 가량 많다. 영화관 스크린 수도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런던이나 로마 거리를 걷다보면 수백

테임스 강변에 여행객이 썰만한 공간이 여러 군데 있으려니와 테임스 강에서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극장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극장에서는 영화는 물론이려니와 '맘마미야'나 '라이언 킹' 같은 유명한 뮤지컬을 몇 년에 걸쳐 공연하고 있다. 뉴욕의 뮤지컬 기획자도 런던의 공연 상황을 살펴 런던에서 히트한 것은 뉴욕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뉴욕에 가도 바다나 강은 접근하기도 쉽고 그 주변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 자연과 문화를 하나

한강을 치수의 대상으로나 대하고 한강변을 투자기처로만 저울질 하는 상황에서 문화가 넘실대는 문화강국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복구어(緣木求魚)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희망을 가져도 된다.

서울시가 한강에 인공섬을 만들어 공연장과 갤러리, 영화관 등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이다. 인공섬이 들어서는 2009년 이후에는 한강 풍속도가 선진국형으로 크게 바뀔 것이다.

공연장을 제작 수준 높은 공연장을 만들 능력이 있는지 방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새 문화공간은 그 가능성을 창출할 것이다.

한강뿐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강동구에서 강서구에 이르는 긴 한강 주변 곳곳에 재개발 곳은 많고 그럴 경우 꼭 문화공간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

고가의 아파트는 즐비해도 문화는 없는 풀부의 나라라는 바깥 시선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향유하며 사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 인프라는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고려대 신방과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강과 문화공간

문화상품 수출량은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네 배 가깝게 많고 영국은 스무 배 넘는다.

개계지출에서 문화여가비 비율이 이탈리아는 4.4%로 우리나라의 4.0%에 비해 약간 높지만 영국은 7.9%로 우리보다 두 배가 높다. 이런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경제는 좀 나아졌지만 문화적으로 아직 멀었음을 실감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좀부 비슷하게 보고 있는 데 거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얼마 전에 런던을 여행한 바 있다.

문화지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는 두 나

의 패키지로 둑어놓은 셈이다.

우리 한강은 어떠한가? 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둔치나 다리 밑에 뜯자리를 깔고 더위를 식히는 정도다. 한강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은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뜯자리 깔고 앉아 있으려고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다.

한강 양쪽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아파트 단지는 조망권 덕분에 투자 가치가 높아지지만 문화와는 관계가 없다. 한강에 나간 김에 영화나 뮤지컬을 보고 읊만한 공연장도 한강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분리 개원한 광주, 전남 발전에 바란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6일 각각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 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문을 열 뒤 95년 6월 광주시의 출연에 따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했으나 지난 3월 다시 각각의 연구원으로 분리돼 이날 개원한 것이다.

광전발전은 그동안 분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통합운영과 분리운영에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따라서 광주, 전남발전은 앞으로 분리운영에 따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에 서 각각 운영돼야 할 것이다.

양 연구원은 대도시와 농어촌이 갖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각각 특화할 필요가 있다. 광주발전은 도시 및 문화 분야, 전남은 농어촌 정책 및 관광·해양 분야 등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전문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전남발전은 일부의 지적처럼 퇴직 공무원이나 정무직의 사령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분리 개원을 계기로 시·도의 정책을 자문, 기획, 평가하는 우리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거듭나기 를 바란다.

정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중해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광양만권과 인천, 부산·진해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 외에 대구·경북, 경기 평택·충남 당진, 전북 군산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난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극히 예외적으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정부가 광양만권 등 3곳을 우선 지정한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차지 단체들은 필사적이다. 대구·경북은 경

제자유구역과 다른 '지식경제자유구역'을 요구하고 있다. 물류와 항만 등은 요건에서 배제한 채 내·외국인 지식산업 기업의 투자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평택과 당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표방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남발되면 투자기업이 한정된 상태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현재의 경제자유구역도 기업유치 실적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현실화되면 '선택과 집중' 대신 '경쟁과 분산'의 논리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사정은 부산·진해나 인천과는 또 다르다. 광양만권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연계해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육성하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의 '투 포트' 정책이 흔들리면서 물동량이 갈수록 떨어져 부산은 물론 인천항에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신중해야 한다. '파주기'식 지정은 자칫 '특구 천지'를 만들어 공멸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보다는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대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88 서울을 립픽을 떠올리면 기억에 남는 명장면으로 남자 육상 100m 결승전이 빠지지 않는다. 인간탄환으로 불렸던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의 역사적 대결은 손에 힘을 줘야 할 엄청난 불거리였다.

대부분 금메달의 주인공으로 루이스를 뽑았지만 존슨이 9초79의 세계기록으로 결승전을 먼저 통과한 것은 이번 종의 이변이었다. 루이스와 0.13초 차이였지만 윤안으로 보기

에도 존슨이 확실하게 앞선 장면은 시청자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사흘 뒤 존슨은 아니볼릭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들통나 한 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기록 증진을 위한 약물투여 역사는 고대 로마를 립픽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론전차 경기(Chariot)에서 승리하기 위해 꿀과 보리를 물과 혼합하여 만든 봄밀액(Hydromel)이나 술같은 알콜성분을 경주마에게 먹인 것이 시초였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약물은 해로인, 모핀, 일갈로이드, 스테로

이드 등으로 진화를 거듭해왔고 지난 70년대 스포츠 최강국 동독은 아예 선수들에게 일부러 금지약물을 복용토록 했다.

약물 복용이 문제로 되면서 1968년 그레노를 통제물질로부터 선수들에게 대한 도핑테스트가 실시됐는데, 이후 각종 대회마다 약물 복용에 대한 검사와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오는 25일

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무려 1천회 넘는 도핑 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 거짓으로 얼룩진 기록을 없애겠다는 의지다.

미 프로야구 배리 본즈가 지난 5일 755호 홈런을 터뜨리며

행크 아론과 타이기록을 수립했으나 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벤 존슨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약물을 복용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복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2년동안 하늘에 달을 뜨는 죄악을 면할 수 있다.

기록을 인정하는 한 순간에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창작 동물서상

'화성' 수컷 '금성' 암컷



남자는 화성에서 았고 여자는 금성이었다. 그래서 맘과 사고가 전혀 다르다.

전세계적인 밀리언셀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책을 읽은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6년 이상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4천만부 이상 팔린, 지금도 꾸준히 독자들의 손길이 닿는 남녀의 독특한 심리구조를 파헤친 연애 심리서의 고전이다.

서로 다른 성에서 았으니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는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 책의 주된 내용,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남녀평등이란 모든 면에서의 균등한 평등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어쩔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더 높은 차원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외모에서 보다시

피 암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보통 외모로만 암수를 구별하지만 성격이나 체구 역시 암수를 판별하는 중요한 잣대다.

캥거루 수컷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면 '부미'라고 불리운다. 부미(boomer)는 무리를 이끌고 수호할 책임을 진다. 그 보상은 그의 자손을 번창시킬 기회를 누구보다도 많이 갖게 된다는 것.

하지만 이 부미가 힘으로 암컷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렇게 했다가는 무리 내에 암컷들끼리

연합을 형성하여 그를 내쫓아버린다.

소위 '신사도'라는 게 필요한 것이다. 동

물들을 지켜보면 인간사회와 복잡한 문

제의 해답이 가끔 보이는 듯도 하다.

◇ 최종욱

광주우주동물원 수의사 lovnat@hanamil.net

활어 원산지 표시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있게

않거나 그나마 붙여놓은 곳은 10곳 중 1곳 정도다.

아예 하나님의 수족관에 흰색과 노란색으로 표시해놓는가 하면 국내산 표식이 된 곳에 외국산 활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활어의 원산지 표시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해줘야 한다.

▲ 우인순·광주 북구 화암동

학습지 책과 테이프 따로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두 명의 자녀가 책과 테이프가 떨어 있는 학습지로 공부하고 있는데 연년생이다보니 이중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학습지 담당 교사에게 큰 아이가 떴던 테이프가 있어 둘째 아이는 학습지만으로 공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본사에서는 형제간이라도 테일을 제외한 학습지지만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습지 회사의 흑포가 아닌가. 학습지는 문제를 풀면서 해야 효과가 있는 만큼 이미 사용하거나 정답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없다.

하지만 허리포는 다르다. 한두번 듣고 그 대로 놓아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면

▲ 유지영·목포시 수경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구(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광고국	2200-521	
편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조사부</td			